

성철 스님 기리는 우표 나왔다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성철 스님을 기리는 우표가 발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현대 한국 인물시리즈 네 번째 우표로 종교인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을 6월 27일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총 140만 장(성철 스님 70만장, 김수환 추기경 70만장으로 전지 각각 구성)으로, 두 종교인의 생전 모습과 함께 성철 스님의 '불기자심(不欺自心,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김수환 추기경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친필을 문구로 담았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성철 스님·김수환 추기경 우표발행을 계기로, 나눔과 봉사,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황금기 이젠 없다"… 신행결사로 결속력 다지는 대불청

대불청 창립 100주년 앞서 내부성찰
"대사회적 가치 도출해 대중 신뢰 얻어야"

4년 앞 다가온 100주년
임원연수서 결사방향 논의
비전 갖춰 외부자원 접근
발전기금 모연 확대 기대

CMS 매월 약 200만원, 2년간 6000만원 모연, 최종 목표액 53억 원. 창립 100주년을 4년 앞둔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의 발전기금 모금 현황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과거 황금기와 같은 전폭적인 후원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대불청이 신행결사를 통한 내부조직 결속력 강화와 조직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 발굴에 고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불청은 지난 2013년 제32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 100주년 기념사업과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공의를 모았다. 이듬해 1월에는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구성을 결의, 6월에 사업계획 초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기념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사료수집 △영상취재 △100주년 기념행사 △신행 △발전기금 모금 △심우장 성역화 추진 △사회공헌재단 설립 추진 △국제교류 등 총 8개 분과에 분과장을 비롯해 활동력이 높은 위원들을 배치했다.

2년여가 흐른 지금, 우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사료수집·영상취재·발전기금·신행결사 등 4가지다. 이 중 사료수집과 영상취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수집의 경우 전국 각 지구별로 주요 활동자료를 정리하고, 유고인 주요인사에 대해서는 유족과 접촉해 보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영상취재는 대불청 역대 주요인사를 만나 대담하는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담장소 역시 백담사·만해마을·다솔사·선학원·심우장 등 대불청과 인연이 깊은 곳을 섭외 중이다.

반면 발전기금과 신행결사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다가 확고한 가치가 설정되지 않을 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대불청은 우선 불자로서 지켜야할 꾸준한 정진으로 결속력을 높인 뒤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적인 의미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선결과제가 해결됐을 때 조직 외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준호 대불청 회장은 "지금까지는 대불청 내부자원을 활용해 기금을 마련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외부자원을 끌어오려면 그만큼 울림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대불청은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이어 "2013년 당시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첫 논의가 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아직 7년이나 남았네'였다. 하지만 4년 남은 지금도 관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며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신행정진을 하고, 철저히 성찰해 조직 내외부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불청은 7월 16~17일 열리는 임원연수에서 현 상황을 돌아보고, 구체적인 신행결사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행결사의 틀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다. 청(淸)·건(健)·진(眞)을 바탕으로 매일 108배·독경·참선·염불 등 스스로 정한 수행을 실시한 뒤 홈페이지에 공유하거나 선행·보시하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고 그간의 정진과정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자리도 준비 중이다.

전 회장은 "1998년도 사단법인이 되면서 공익사업 등을 전개해왔지만 다른 단체들처럼 사회적 아젠다(agenda)에 맞춘 활동은 부족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도출해 내년쯤 비전선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대중의 신뢰를 얻은 뒤 만해청년통일센터 등과 같은 산하기구를 조직해 정체성이 뚜렷한 사회활동에 나서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대불청은 신행결사에 이은 대사회적 가치 도출 이후 모연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100주년에 맞춰 대불청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썬 불투명하다. 회관건립기금으로 모연된 금액은 현재 약 1억5000만원. 별도의 공간을 갖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근래 들어 모금액 추세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다.

전 회장은 "100주년 발전기금이 많이 모이면 일정부분은 회관이나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며 "꼭 회관이 아니더라도 만해사상을 펼칠 수 있는 교육시설은 필요하다. 앞으로 비전을 갖고 적극적인 모연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20년 6월 20일, 일제강점기에 '불교유신과 조국광복'이라는 기치 아래 만해 한용운 스님을 주축으로 창립한 조선불교청년회(현 대불청). 오랜 역사에 비해 변변한 회관조차 없이 '만해정신'을 바탕으로 청년불자들을 아우르는 데 힘쓰고 있는 청년불교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7월 6일 제67차 포교종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현시대의 불교 신행 운동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67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세계종교 흐름 속에서 현대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한국불교 신행문화와 운동 진단,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출범한 7대 포교원의 신행운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의미도 담겼다.

연찬회에서는 △세계종교의 흐름과 현 주소(오강남 리자이나대 명예교수) △현 한국불교 신행운동의 현황과 지향(조성택 고려대 교수) △별원 이후 포교원의 성과와 과제(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등의 글이 발표된다. 아울러 토론자로 명법·법인·주석·남전 스님과 손석춘 건국대 교수,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포교원 측은 "한국불교 신행운동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포교의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아! 부모님, 극락왕생하소서" 서울 조계사는 6월 30일 백중 49일 기도 입재를 겸한 연꽃축제를 개막했다. 사진은 조계사 극락전 앞에서 백중 연꽃축제 입재식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모습이다. 백중은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의 영가 천도를 위한 공양과 함께 은혜와 효 사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노덕현 기자**

'현대사회와 승가상' 교육원, 7일 세미나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와 승가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가 '역사속의 승가상은 무엇인가'를, 교육위원 허정 스님이 '미래 지향적인 승가상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덕문 스님(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 원철 스님(교육위원회 위원,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오인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중앙승가대 교수),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교육원은 "현대사회 흐름속에서 바람직한 승가(출가)의 역할과 현대사회는 어떤 출가자를 요구하는지 점검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걸음마다 연꽃, 잔잔한 물소리로다"

은해사 포산당 혜인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 6월 27일 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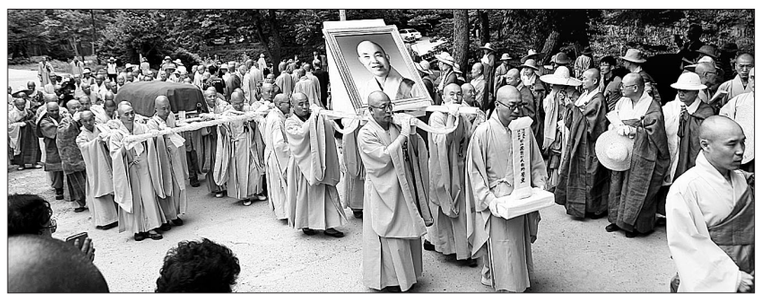
은해사 조실 포산당 혜인 대종사의 영결식 및 다비식이 6월 27일 조계종 은해사 제10교구장으로 엄수됐다.

종각 5타 명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은해사 불교합창단·선화여고 합창단·3사관군악대의 합창, 반야심경 봉독, 문도대표 덕조 스님의 헌다 및 헌향 등이 진행됐다. 영결식장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념 스님, 제10교구장 돈관 스님, 문도대표 덕조 스님,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3,000여명이 모여 혜인 대종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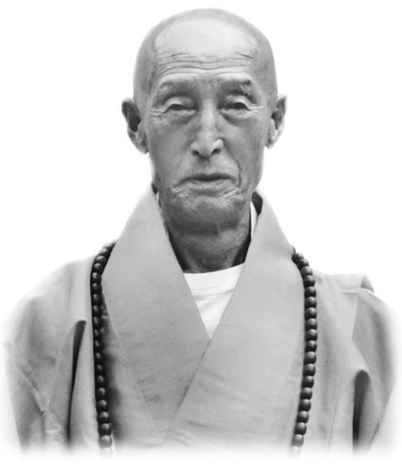
설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혜인 선사가 팔공산문을 활짝 열어 제치니 걸음마다 연꽃이요,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더라. 녹음을 스치는 맑은 바람이요, 맑은 하늘에 밝은 달이로다"라며 혜인 대종사를 기렸다.

이어 스님의 운구는 다비장인 연화대로 이운됐다. 법구에 불길이 닿자 곳곳에선 스님을 배웅하는 울먹임이 들려왔다.

한 평생 수행과 포교에 오롯이 매진했던 혜인 스님은 6월 23일 밤 "지옥 천당을 건설하고 혹 쳐부수기도 하면서 당당히 대우주의 주인공이 되나니.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의주 주인이 되지 못하리라"란 임종게를 남기고 세수 75세, 법납 62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재) 한국불교여래종 연화당 인왕 대승정 49제 및 공양탑 제막식 봉행



연화당 인왕 큰스님
사리 친견 기도 중 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대중포교와 나눔과 자비실천을 몸소 행하신
인왕 대종사님의 49제 법요식 및 공양탑 제막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뜻 깊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❶ 일 시 : 2016년 7월 15일 (음,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❷ 장 소 : 성남 남한산성 약사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산7)
❸ 문 의 : 남한산성 약사사 (031-734-3205 / 010-3539-4692)
❹ 큰스님과 인연이 있는 사부대중께서는 49재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재)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전 종도 합장